

# “‘쓰랑꾼’ 대신 ‘천만 배우’ 되고 싶어요”

〈쓰레기+사랑꾼〉



### 영화 ‘스플릿’ 전직 천재 불링선수 철종 역 유지태

### 최근 홍보 위해 처음으로 예능 출연...예능감 뽐내

“그동안 개인적으로 작가주의 영화를 선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결국 상업예술이기 때문에 관객과 소통하지 못하면 영화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스플릿’으로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유지태는 영화에 대한 오랜 고민의 결과를 이렇게 털어냈다.

‘불날은 간다’(2001), ‘올드보이’(2003) 등 한국 영화사에 남을 여러 편의 인생작을 남겼지만, 그의 행보는 어느 배우들과 달랐다. 중저예산 영화에 많이 출연했고 2003년 ‘자전거 소년’을 시작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쓴 3편의 단편영화를 연출, 제작하기도 했다. 배우와 작가, 감독, 제작자의 길을 함께 걸은 셈이다.

머리 속이 온통 영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가 차기작으로 ‘스플릿’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했다.

유지태는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시나리오에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으면 도전해보고 싶다”며 “나무가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고 도전의 과정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유지태는 이번 영화로 연기 나이에 하나를 추가했다. 그는 ‘스플릿’에서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가짜 석유를 판매하며 술에 절어 사는 천재 불링선수 철종으로 나온다. 허세가 있고 짜질하면 서도 측은함이 느껴지는 역할이다. tvN 드라마 ‘굿 와이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내까지 이용하는 검사 이태준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작하고 모범생 같으면서도 때로는 악랄하게 바뀌는, 선악이 공존하는 눈빛과 연기력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했다.

“밑바닥 인생을 연기하려니까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독님이 촬영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편이어서 언제까지나 어색해할 수만은 없어서 주변 인물들을 참고했죠. 누구를 참고했는지는 밝힐 수 없고

요. 하하.” 유지태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천성 영화인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 자신도 “영화 한우물만 파는 ‘터널 아이’(터널처럼 한 곳만 본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다.

그런 그가 최근에는 영화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공중과 버라이어티 쇼인 KBS 2TV ‘1박 2일’에 나와 예능감을 뽐냈다.

유지태는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고 싶고 난리”라며 농담을 한 뒤 “사실 저는 예능 쪽에는 재능이 없지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넓어진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유지태가 부쩍 관객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책임감 때문이다. 2014년 그가 주연한 영화 ‘더 테너 리카르도 스피노’는 1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지만, 5만명이 드는데 그쳐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당시 저는 배우로서 성취는 있었지만, 감독과 제작자는 손실을 많이 봤고 그 이후로 영화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영화라는 것이 관객과 소통을 해야 하고 상업영화라면 손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유지태는 요즘 건강하게 오랫동안 영화를 할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04년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배 나온 유부남을 연기하기 위해 120kg까지 살을 찌웠다가 순식간에 72kg까지 빼기도 했다.

“당시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면서 오랫동안 영화를 하고, 가족도 잘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그래서 영화 촬영이 없는 날은 직장 인처럼 회사에 출퇴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지태는 “제작자로서 큰 야망은 없지만, 감독의 결이 살아있으면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히며 흥행 배우로서의 욕심도 은근히 드러냈다.

‘굿 와이프’로 ‘쓰랑꾼’(쓰레기와 사랑꾼을 합친 말)이라는 별명을 얻은 유지태는 자신의 이름 앞에 나온 수식어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제 별명이 이제 ‘천만 배우’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스포어 처리를 한 배우도 괜찮고요. 하하”



## 유부남 스타들 살림 끝판왕 노린다

###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김승우 등 출연

유부남 스타 6명이 살림을 위해 뭉쳤다. 배우 김승우, 김정태, 봉태규, 개그맨 문세윤, 방송인 김일중,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하태권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8일 밤 11시10분 첫선을 보인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을 통해 ‘살림하는 남자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외치며 가정의 살림에 팔을 걷어붙였다.

“1박2일” 이후 3년 만에 예능에 복귀하는 김승우는 “살거지에도 철학이 있다”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행동파’의 모습을 보여줬다.

“살림 30년차”라는 김정태는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등 어느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내공으로 6명의 출연자 중 독보적인 살림 실력을 과시했다.

“뜻하지 않은 공백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됐다”는 돌쟁이 아빠 봉태규는 “살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문세윤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가족들에게 아침상을 대령하는 자상한 면모를 드러냈다.

제작진은 “남자 스타 6명이 가정에서 직접 살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자들을 대변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스타들이 직접 터득하고 얻은 각종 살림 팁을 제공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묘미라고 설명했다.

## 유아독존 의사의 가족만들기

### MBC ‘황금주머니’ 14일 첫 방송

천재 외과의가 메스 대신 주방칼을 쥐고 만두 장인으로 변신한다니 궁금증을 더한다.

오는 14일 오후 8시55분 첫 방송되는 MBC TV의 새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외과의사가 가족과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유쾌한 가족 드라마다.

주인공인 외과의사 한석훈 역은 배우 김지현(38·분명 김현중)이 맡고, 상대역인 만두가게 둘째 딸 김설화는 류효영(23)이 연기한다.

제작진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 만들어지는 맛있는 사랑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연출은 MBC 일일극 ‘오늘만 같아라’(2012) 등을 연출해온 김대진 PD가 맡고, 대본은 KBS ‘천상여자’(2014) 등을 집필한 이혜선 작가가 담당한다.

###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현재나 불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5 KBS 뉴스특보 -2016 미국의 선택은?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55 KBS 뉴스특보 -2016 미국의 선택은?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00 MBC 뉴스특보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1부	10 SBS 뉴스특보-2016 미국의 선택
10		40 지구촌 뉴스	20 기분 좋은 날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수목드라마 (공황가는 길)(재)	30 리얼스토리 논	00 TV블로그 쏘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SBS 뉴스특보 -2016 미국의 선택
12	00 KBS 뉴스 12		00 MBC 뉴스특보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2부	
1	00 KBS 뉴스특보 -2016 미국의 선택은?	00 비타민 (재)		00 열린 TV 시청자재상
2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수목미니시리즈 (소망왕 루이)(재)	
3	00 강연 100℃ 라이브 55 트윈생체제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이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2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특집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여사 쿵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예술론 또봇 30 SBS 뉴스미라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코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쏘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의 선물)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트리 앤 트루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특집 생방송 2016 미국의 선택, 한반도의 미래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공황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소망왕 루이)	00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인간탐구 위대한 질문	10 추적 60분	10 500회 특집 리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2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고영숙의 아묵탕과 참치 썬장)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똥똥 유치원 1~2 08:30 울강양 소방차 레이 08:45 Why-최고다! 호기심따지 09:00 주사위 오징어 퀴비쥬 09:15 시계마을 타기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영숙의 아묵탕과 참치 썬장)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재) 14:25 책과 땅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기탐험대
15:20 꼬마키사 마이크 15:35 오솔상(재) 15:45 레이디2(재) 16:15 두다다쿵 16:30 Why-최고다! 호기심따지(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17:15 울강양 소방차 레이(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체코문화기행 3부 와인의 향기에 취하다, 모리비아) 21:30 한국기행 (잘먹었습니다 김장 3부 김치 추억을 담다) 21:50 EBS 다큐 프리덤 (국한의 땅 3부 히말라야, 벼랑 끝의 삶) 22:45 국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9일(음 10월 10일 乙未)

<b>子</b>	48년생 본의 아닌 언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60년생 중차대한 길목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72년생 바람직한 조건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다. 84년생 대리 만족을 할 운세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24, 01	<b>午</b>	42년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 54년생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만사가 틀어지거나 망설이리라. 66년생 무지개 빛깔의 길조가 아름답게 비친다. 78년생 모순된다면 양자 모두를 차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83, 72
<b>丑</b>	49년생 상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면 자신의 문제로 გადა이 잡힌다. 61년생 분유거나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73년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다된 마당이니 깔끔하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운의 숫자 : 23, 47	<b>未</b>	43년생 원인 요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장을 받게 된다. 55년생 느낌보다는 사실적 정황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67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른다. 79년생 표면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일하라. 행운의 숫자 : 70, 04
<b>寅</b>	50년생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62년생 애써 시도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 74년생 지장을 줄만한 허자가 보인다. 86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두어야만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6, 60	<b>申</b>	44년생 자신부터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56년생 주저하지 말고 중심의 계획대로 실행하라. 68년생 겉으로 나타낸 것만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80년생 쟁 대신 알아타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8, 61
<b>卯</b>	51년생 문제가 발생하리라. 63년생 체면 때문에 내버려두었던 불상사가 생길 것이니 적극 대처하라. 75년생 궁극적으로는 황금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고 비유할만하다. 87년생 말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78	<b>酉</b>	45년생 내용이 없다면 그저 공허할 뿐이리라. 57년생 애매한 입장이란 아예 관여하지 않음이 백만 나을 것이다. 69년생 웃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지울 길이 없을 것이다. 81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29
<b>辰</b>	40년생 확실히 하라. 52년생 더불어서 행한다면 배가 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64년생 발효되는 작용과도 같은 이치이리라. 76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실행하라. 88년생 최근에 관련된 것이 근간을 이루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9, 86	<b>戌</b>	46년생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58년생 점차 확대되어가는 길목으로 향한다. 70년생 획득 못지않게 관리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2년생 무리한다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76, 65
<b>巳</b>	41년생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것이 무탈하리라. 53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65년생 막연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77년생 과욕한 만큼 잃을 수도 있는 운로이다. 89년생 소신성 도모하라. 행운의 숫자 : 32, 42	<b>亥</b>	47년생 의도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59년생 관심을 갖는다면 진척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71년생 여러 사람들과 아예 끼어서 참모로 난처하게 될 것이니라. 83년생 원인 요소와 기운을 같이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6,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